

[여수·순천·광양]

“호국의 고장 여수 자랑스리워”

‘거북선축제’ 참가차 여수함 이끌고

입항한 여수출신 함장 김성훈 중령



“여수에서 나고 자란 이순신장군의 후예로서 호국의 고장 여수를 방문해 더 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2일 제40회 거북선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될 해군함정 공개행사를 위해 여수함을 이끌고 여수항에 입항한 김성훈 중령.

여수 생보초등학교를 졸업한 김 중령은 해군사관학교(41기)를 마치고 소위로 임관해 2004년 12월부터 여수함의 함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여수를 찾은 여수함은 다목적 기능을 가진 초계함으로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해상경비작전, 선단 호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여수출신인 자신이 여수함을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며 상관을 설득, 여수함을 이끌고 개선(?)한 김 중령은 “재대로 찾아보지 못한 고향이기에 더 미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작으나마 고향과 고향 사람들을 위해 꼭 해주고 싶었다”고 고향 방문 소감을 밝혔다.

김 중령이 해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코흘리개 시절 겪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막연한 신망 때문이었다. 김 중령의 태자리마 바로 학동마을이며 입단 당시 수군의 군영터이기도 하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수를 생각하면 먼저 이순신 제독의 전라좌수영과 좌수영만이 떠오르게 된다”며 “아직까지도 조국을 지켜낸 역사와 천혜의 자연을 고스란히 지켜내고 있는 고향이 자랑스럽기만 한다”고 말했다.

김 중령은 또 “이름처럼 아름다운 여수는 개척할 수 있는 조건이 무궁무진하다”며 “호국정신과 잘 보존된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조국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과거 좌수영민처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여수함은 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에게 함정 공개 행사를 갖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5월 바다 ‘안개 주의보!’

최근 5년간 화물선 해양사고 84%, 안개해역서 발생

여수해양청 “레이더 활용 등 안전수칙 철저 준수”

5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안개에 의한 선박간 충돌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월 중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월 평균 전체 건수보다 7건이 적은 45건으로 집계됐으나 충돌사고가 26.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년 동안 총 44척으로 이 가운데 84.1%에 달하는 37척에서 충돌사고가 발생,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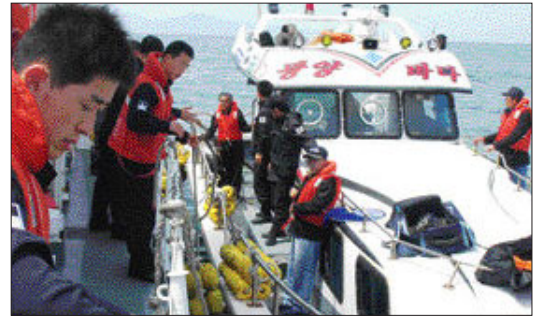
이는 대부분 안개해역 항해 중 발생한 것으로 해무가 주로 발생하는 레이더 등 항행 보조시설물을 이용한 철저한 견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요에 따르면 5월 한 달은 해상기상 여건이 양호해 해양사고 발생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 해역에서 극지적인 안개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항만 주변 해역에서의 충돌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청 관계자는 “5월은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므로 항만을 이용하거나 연안에 근접하여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발생에 대비하여 레이더 등 항행 보조시설물을 이용한 철저한 견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지역 단신/

여수해경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입·출항 미신고 및 승선정원 초과 ▲미신고 낚시어선의 영업 및 음주운항 ▲갯바위낚시 금지구역 13개소에 낚시객 무단 하선하는 행위 ▲국가 지정 명칭 7호인 백도 무단 입도 낚시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및 보편 미가입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총 67척을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척을 적발했다”며 “낚시어선 이용시에는 반드시 신고·허가된 선박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광양시, 휠체어리프트차량 1대 기증



광양시는 최근 중증장애인과 원거리거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대형 휠체어리프트차량 1대를 구입,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수송 전용차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임시로 일반대형버스를 임대해 운영해 왔으나 휠체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 다압면 등 원거리거주 장애인 수송에도 애로를 겪었다.

이번 대형휠체어버스 지원을 계기로 중증장애인 및 원거리거주 장애인도 복지관 이용이 한결 수월하게 돼 교육과 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어린이날, 여수해경 청사 활짝 열립니다”

4~6일 ‘오픈 하우스’ 행사

여수해양경찰은 제 84회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의 주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정 부채합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4~6일까지 3일간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는 경찰서의 상황실 등 청사 시설물 개방과 여수구항 해양공원에서 특공대 헬기레펠 시범, 함정공개, 함정승선 체험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수구항 해양공원(하백릉대 인근 안벽)에서 오토도, 국가산단, 광양항, 노랑해 전지 등을 둘러보는 함정승선 체험이 하루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다”며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승선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해경 위험물 해상사고 대비 맞춤형 방재훈련



여수해양경찰은 2일 오후 여수시 만성리 앞 해상에서 여수·광양항의 국가 주요 임해산업시설 및 위험물 운송선박 해난사고를 가상하여 방제조합과 합동으로 해양오염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여수해경 제공)

“매니페스트 성실한 도우미 될게요”

<참공약 선택하기>

5·31 지방선거 순천시민연대 출범, 본격 활동 나서

5·31지방선거를 깨끗한 정책선거로 이끌어 내기 위해 순천시 지역 시민단체들이 한데 뭉쳤다.

순천시경선, 순천 YMCA 등 순천시 지역 7개 시민단체는 2일 오전 순천 YMCA 등대실에서 ‘5·31 지방선거 순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후

보자들은 선심성 공약 남발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결을 통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주길 바란다”면서 “시민연대는 매니페스트운동을 적극 전개해 지역민을 위한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자치, 생태(환경), 교육·문화, 복지여성, 지역 경제 등 총 5대의 제를 선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공약 개발

과 정책 제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출마 후보자 및 정당의 수용여부를 시민에게 공표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과 부정 선거 감시 활동 전개와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투표 참여 운동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연대는 오는 17일 순천시장 후보자 초청 공명선거 서약식 및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18일에는 2002년 지방선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순천 택시요금 11·8% 인상

심야·일부지역 활동은 현행 유지

순천시는 택시 기본요금(2km)을 지난 1일부터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올리고, 거리요금도 178m에서 173m당 100원으로 인상을 등 평균 11.8% 인상된 새 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300원 올림과 동시에 15km/h 이하 거리시간 변

산요금도 43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러나 심야와 도시 외지역 활동(20%), 복합활동 4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순천시는 읍·면지역이나 동(洞) 지역과 읍·면 지역을 운행하는 복합활동 지역에서 해룡면 상삼리, 복성리, 서면 선평·신흥·강창·입석·화정·당부마을과 서면공단, 보림·에원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Table with election results for various district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Columns include candidate names and vote count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엘지공인중개사', '유성공인중개사', 'LC타워(주)', '현대공인중개사', '21세기부동산개발(주)', and '대인동삼일부동산'. Each ad lists services,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